

현안과 과제

■ 13차 5개년 계획으로 본 중국 경제의 향방
- 샤오캉 시대의 중국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1. 중국, 신성장 전략 수립

-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논의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6% 중반대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
 - 지난 10월 26~29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
 -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올해까지 총 12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 이번 13차 5개년 계획은 2015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차 중국공산당 5중전회(五中全會)¹⁾를 통해 수립
 - 중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샤오캉(小康) 사회'²⁾ 실현을 꾀함
 -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될 13차 5개년 계획부터는 성장 목표를 12차 5개년 계획 7.0%에서 6.5%로 하향 조정
 -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샤오캉 사회의 구현을 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비중 확대, 도시화율 상승 등을 꾀하는 한편, GDP 대비 R&D 투자 비중 확대 등 고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여건을 강화할 계획
- 본고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최근 중국의 5개년 계획 비교 >

구분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		13차 5개년 계획 (2016~2020)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GDP (연평균)	7.5%	10.8%	7.0%	7.4%	6.5%
서비스업 비중	43.5%	43.0%	47%	48.1%	50% 예상
도시화율	47.0%	47.5%	51.5%	54.8%	60.0% 예상
실업률 (도시 기준)	5.0%	4.1%	< 5.0%	4.1%	< 5.0% 예상
R&D/GDP	2.0%	1.75%	2.2%	2.1%	2.5% 예상

자료 : 중국국무원 자료 정리.

- 주 : 1) 12차 5개년 계획 실적치는 2014년 기준(단, R&D/GDP는 2013년 기준).
 2) 13차 5개년 계획은 예상 목표치(GDP 성장을 제외).
 3) 13차 5개년 계획 성장목표는 5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

1) 18기 5중전회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회의로 2016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제13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이 결정됨.
 2) 중국은 '두 가지 백년(兩個百年)'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의 건설'을 하고, 이어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흥'을 목표로 설정.

2.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

① 성장 전략 : 소비주도형 성장 추진

○ 향후 중국 경제는 내수 중심, 특히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추진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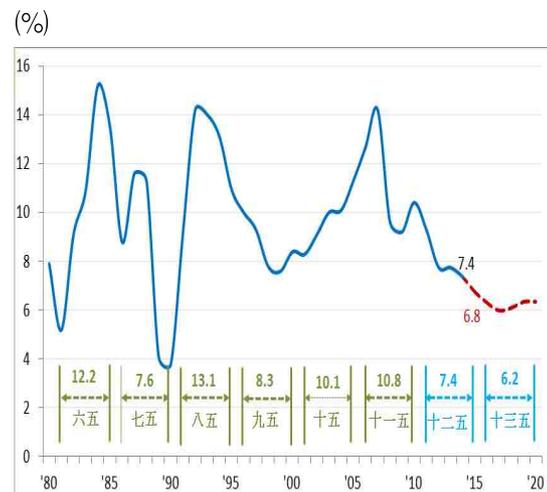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까지 성장 방식 전환을 위한 초석 마련
 - 중국은 제5차 5개년 계획(1976~1980년)부터 양적 성장 전략을 표방하는 등 본격적으로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
 - 이후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부터 성장 방식을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본격화
-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부터 내수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했고, 2016년부터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 경제는 1980~2010년까지 연평균 10%대의 고도 성장이 지속
 -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을 표방한 후 7%대의 중성장을 용인
 - 향후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 추진을 통해 연평균 6.5%대 성장을 꾀함

< 중국의 역대 성장 전략 비교 >

구분	성장목표	성장 전략
6차('81~85)	5.0%	- 양적 성장에 따른 문제 해결
7차('86~90)	7.5%	- 성장의 속도 중시
8차('91~95)	6.5%	-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9차('96~00)	7.0%	- 질적 성장 강조
10차('01~05)	7.0%	-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 성장 추진
11차('06~10)	7.5%	- 성장전략 전환 준비
12차('11~15)	7.0%	- 내수중심 성장전략 추진
13차('16~20)	6.5%	- 소비주도형 성장 가속

자료 : 중국국무원 자료로 현경연 자체 정리.

< 중국의 시기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 >



자료 : CEIC, IMF.

- 주 : 1) 2015~2020년 성장률은 전망치.
- 2)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은 IMF 전망치로 계산.

② 산업 구조조정 : 혁신형 고부가 산업으로 재편

○ 중국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가속될 전망

- 서비스 산업의 경제 비중 확대 지속

- 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1990년 32.4%에서 2014년 48.1%로 상승했는데, 2013년에는 이미 제조업 비중을 추월
- 한편 제조업 비중은 1990년 40.9%에서 2006년 47.4%까지 늘어났으나, 최근 몇 년간 비중이 하락하면서 2014년에 42.7%를 기록

- 한편, 중국은 향후 30년간 산업고도화 3단계 전략 추진을 통해 제조 강국 진입을 꾀할 것임

- 1단계(2015~2025년)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수준으로 제고
- 2단계(2025~2035년)는 중국 제조업 수준을 글로벌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 까지 개선,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산업을 확보
- 3단계(2035~2045년)는 혁신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시장 선도를 꾀함

- 더욱이, 에너지 안보 전략,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 등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추진할 계획

< GDP 대비 1·2·3차 산업 비중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제조업 2025' 3단계 계획 >

구분	세부 내용
1단계	-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 진입 · 스마트 제조업 수준 향상 · 제조분야혁신능력 및 노동생산성 향상 · 2025년까지 세계 제조업 2강 진입
2단계	- 글로벌 제조 강국 내 중간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 · 혁신 능력 제고, 경쟁력 강화 · 주요 분야에서 핵심 성과 달성 · 경쟁 우위 산업 혁신 주도 · 선도적 제조 강국 진입
3단계	-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 · 미국과 대등한 제조 강국으로의 부상 · 선진 기술 및 산업 시스템 구축

자료 : 중국 국무원, 중국제조 2025.

③ 지역 발전 전략 : 거대 경제권 형성 가속

○ 향후 중국내 지역 전반에 걸쳐 거대 경제벨트 업그레이드 전략이 추진될 예정

-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난 12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
 - 2015년 중국 도시화율은 55.6%로 12차 5개년 계획 목표치 51.5%를 상회
 - 1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의 도시화율은 60%에 달할 전망
- 그동안 중국의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 지역균형 발전을 꾀해 왔음
 -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2000년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³⁾, 2003년 ‘동북진흥전략(振興東北)⁴⁾ 등 10차 5개년 계획부터 착수
 - 또, 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2006년 ‘중부굴기(中部崛起)⁵⁾를 단행
- 향후에는 4대판과 3개 경제벨트를 결합,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이 더욱 확장될 것임
 - 우선 동부, 중·서부 및 동북 등지에 걸쳐 4대판(四大板塊) 구축을 추진
 - 이어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창강(長江) 경제벨트 등 3개 경제벨트(三个支撑带)를 결합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도시화율 >



자료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 중국의 도시화 계획 >

구분	12차 5개년 ('11~'15)	13차 5개년 ('16~'20)
전략	- 도시군 전략 - 스마트 도시 조성	- 경제벨트, 경제구
규모	- 대도시 중심 소도시 융합	- 지역간 협력 발전
지리적 유형	- 양횡삼종(兩橫三縱)	- 4대판(四大板塊) - 3대벨트(三个支撑带)
도시화율	- 51.5%	- 60% 전후 예상

자료 : 中國國務院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양종삼종(兩橫三縱)이란 루치아오, 장강 경로 등 2개의 횡축과 연해, 징하이징광, 바오쿤 경로 등 세 개의 종축을 의미.

3) 서부대개발은 2001년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서부내륙의 철도부설, 석유화학 단지 조성, 황허(黃河) 대수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칭함
4) 동북진흥전략은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기, 2020년까지 동북지역의 인프라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5) 중부굴기는 2005년 3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중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통칭함.

④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 민간자본 활용도 제고

○ 향후 국유사업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확대할 전망

-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부실화가 지속 심화

- 국유기업의 총 자산은 2014년 102.1조 위안으로 중국 GDP 대비 160.5%를 차지
- 국유기업의 GDP 대비 총 부채는 2007년 75.5%까지 하락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2014년 104.6%를 기록

- 향후 부실 국유부문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 예상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1978~1984년까지 기업이윤유보제도(企業利潤留保制度)⁶⁾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존의 기업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관행을 폐지
- 또, 1985~1992년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단행, 1994년에는 회사법을 제정하여 2002년까지 2,500개 시범 기업을 대상으로 개혁 추진
- 2003~2013년에는 국유기업의 지분구조를 개혁했고, 혼합소유제를 설계하여 2020년까지 대부분의 국유기업에게 적용될 전망

< 국유기업의 자산 및 부채 규모 >



자료 : CEIC.

주 : 국유기업(제조업 분야) 자산·부채는 연말 기준임.

<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현황 및 방향 >

구분	정책 개혁 내용
'78~84	- 기업이윤유보제도 도입
'85~92	-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93~02	- 중앙 및 지방의 2,500개 기업대상, 시범적으로 회사법 개혁 단행
'03~13	- 지분구조 개혁, 혼합소유제 설계
'14~20	- 2020년까지 대부분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로 전환할 계획

자료 : 中兼和律次(1999), 중국국무원.

주 : 혼합소유제란 국유기업의 지분을 민간에도 매각을 허용하는 제도.

6) 기업이윤유보제도는 중국어로 '방권양리(放權讓利)'라고도 불리며, 당시 일부 감가상각자금을 제외하고 기업이 획득한 모든 이윤을 국가에 상납했던 관행을 없애고 이윤의 일부를 보너스, 투자, 복지기금으로 돌리는 것을 허용한 시발점이 됨.

⑤ 금융 개혁 : 시장화를 통해 금융 자유화 추진

○ 금리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지속,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 금융시장의 시장화를 통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까지 중국정부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
 - 중국정부는 2015년 10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예대금리 상하한선이 모두 폐지되는 등 금리자유화로 진입
 - 또, 2005년부터 비유통주(非流通주)의 유통주 전환뿐 아니라, 2014년 후강통(滬港通)⁸⁾ 시행 등 자본시장 개방 조치 시행
 - 더욱이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⁹⁾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2013년 상해자유무역지대 시범구 출범 등 금융 인프라 구축도 가속

< 중국 금융 개혁 현황 및 전망 >

구분	~2015년까지	2016~2020년
금융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자유화 기초 여건 마련(2015) - 대출 금리 상하한선 폐지 완료(2014) - 예금 금리 상하한선 폐지 완료(2015) - 은행의 예대비율 폐지(2015) - 예금보험제도 도입(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화 환율 시장화 전망 - 금리자유화 가속 예상
자본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2005) - 후강통(滬港通) 실시(2014) - A주 시장 내 개인투자자 대상, 1인 20계좌 허용(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강통(深港通) 추진 예상 -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 A주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
위안화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위안화로 중국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 가능한 RQFII 허용(2011) - 위안화의 결제통화 기능 확대 - IMF의 SDR 편입 추진(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 - 위안화 투자통화로 확대 강화
금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자유무역 시범지대 출범(2013)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둥, 텐진, 푸젠 등을 자유무역지대로 추가 지정 예상

자료 : 국무원 자료 정리.

주 : 1) SDR(Special Drawing Rights)란 1970년부터 발동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로 금이나 달러 다음으로 제3의 통화로 간주.

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란 전세계 최대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을 말함.

3) A주란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로 거래됨.

7) 비유통주는 국유주, 종업원주,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지분 등 유통을 제한했던 주식을 의미.

8) 후강통이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9)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란 외국기업이 위안화 자금을 가지고 중국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 향후에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등 금융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망됨
 - 對美 달러 대비 변동폭 확대를 통해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시장화 조치가 예상되며,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도 가속될 전망
 - 또, 상하이에 이어 광둥, 텐진, 푸젠 등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해 금융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방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3. 시사점

- 향후 중국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강화를 통해 견실한 중성장 시대의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우선,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차별화된 對중국 진출 전략 마련 시급
 - 향후 중국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을 대비해 'Made for China' 등 중국 내수시장 수요에 맞는 소비재 수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 다음으로, 중국의 산업재편 및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대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책 마련
 - 향후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차이나 인사이트 가속이 예상되므로 IT, 반도체 등 우리의 우위 산업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
 - 한편, 우주·항공 등 우리와 비교해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 모색 시급
- 또, 한중 FTA 및 AIIB 활용 플랜 마련 등 중국의 뉴실크로드 전략에 맞춰 국내 경제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

- 중국의 동부지역 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인 만큼 교통 등 적극적인 기초 인프라 투자 참여 여부도 검토 필요
 - 또, AIIB 회원국 자격을 활용, 향후 동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비한 참여 기회를 극대화해야 함
-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이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로의 리스크 전이를 사전에 방지
- 중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금융 및 실물 부문 모두 부실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내로의 리스크 전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정민선임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